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2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3일 (음력 10월 26일) 월요일

광주 미세먼지 측정·경보 맡는 인력 '부족'

시 보건환경연구원 내 측정·분석·경보 등 전담인력은 단 2명 "도시 확장·대기오염 심화로 인력수요 증가...전담 부서 시급"

광주지역 미세먼지 데이터를 측정·분석해 경보를 발령하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효과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내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2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내 따르면 대기질 측정소 관리·운영·데이터 수집·분석·경보발령과 해제 등 미세먼지 관련 업무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환경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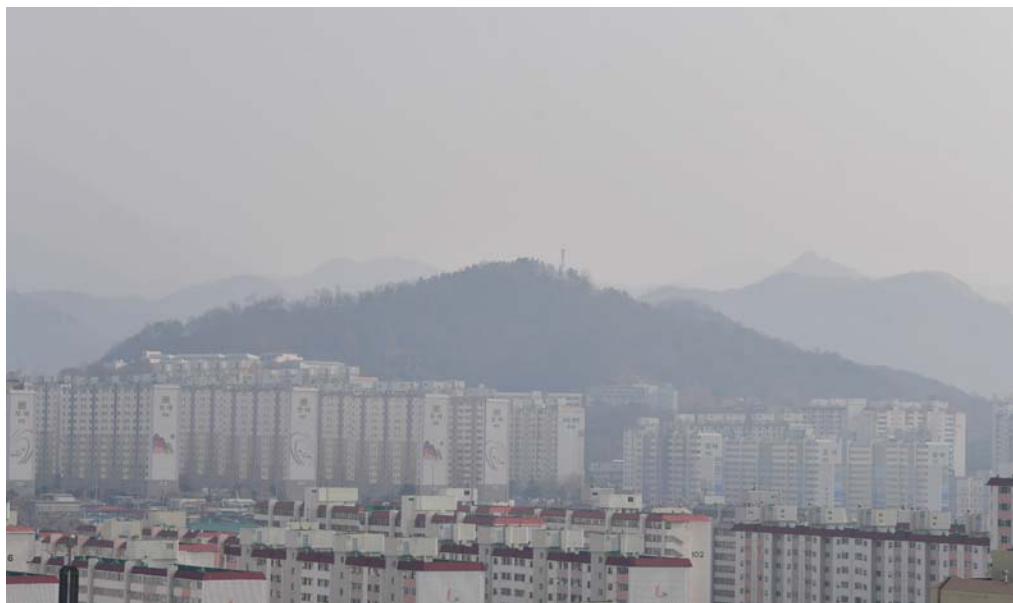
환경조사과 내 과장을 제외한 연구사 6명 가운데 미세먼지 등 대기조사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연구사 2명이 시 전역 대기측정소 9곳의 관리·운영하며 측정된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의 발령, 해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대기조사 전문가인 연구사 1명은 선임부서인 환경조사과 내 사무 업무까지 맡으면서 다른 미세먼지 담당 연구사 2명의 업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환경조사과에 함께 근무하는 대기·수질조사 연구사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의 업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조직개편 때 대기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기후대기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경작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는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미세먼지 등 대기 관련 별도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보건환경연구원 내 대기환경연구

부 대기측정관리팀 19명이 대기측정소 51곳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측정·분석·경보발령과 해제 업무를 맡고 있다.

부산과 인천도 대기환경연구부 안에 각각 대기전담평가팀·환경조사과를 두고 미세먼지 전담 인력을 10명씩 두고 있다. 대구·울산도 각각 생활환경과·대기연구과를 두고 8명과 5명이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소 수가 광주(9곳)와 비슷한 대전(12곳)은 대기·수질조사 업무를 병행하는 환경조사과에 내부조직인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설치 연구사 3명이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미세먼지 측정소 운영·측정 데이터 수집·분석·경보 발령 및 해제까지 미세먼지 관련 모든 업무를 2명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업무가 많을 때는 사무 직원과 수질조사 연구원까지 투입돼 업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보 발령·해제 때에는 2~30통의 시민 문의전화에 응대하면서 관계기관 260곳에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야 한다"면서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때부터는 24시간 비상대기 근무에 돌입하기 때문에 2명의 전담 인력이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경보 발령을 위해 연구사 5명 규모의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북구) 의원은 지난달 12일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까지 대기측정소가 15곳으로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이동측정차량이 도입, 운영되는 만큼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면서 "도시 확장과 대기오염 심화로 미세먼지 관련 업무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전담 부서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낙마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결국 '황남 도피조력 의혹'과 태양광 사업 전력에 발목 잡혀 낙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 사장 측이 지난 20일 밤 늦게 시직 의사를 밝혀 와 27일 오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9개월 만에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 전 사장은 현재 수회 혐의로 구속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와 최 전 교육감은 세 살 터울의 친형제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에 최 전 사장 과여러 차례 통화했고, 최 전 사장 명의의 병원 진료와 차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 전 사장은 검찰의 칼끝이 자신에게 향하자 농어촌공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사장은 태양광 발전업 및 전기발전 등 관련 업체 대표로 일한 전력까지 언론 보도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최규성

태양광으로 한류 쟁기려 했는데...



이혜찬

당에도 약 영향이...



최규성

형님 때문에...

전남도, 관광지 평가 지역호감도 3년 연속 '우수'

전남도가 전국 관광지 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지역호감도'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전남도는 문화마케팅 연구소가 전국 229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관광정보와 트래블 지수를 평가하는 '트래블 아이 어워즈'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여수 등 전남 4개 시군이 각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여수시는 '지역호감도' 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했고 강진군은 '관광시설 부문' 최우수, 해남군은 '특산물 부문' 우수, 광양시는 '축제부문 중 봄 축제' 최우수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트래블아이 어워즈'는 관광정보 마케팅 플랫폼을 통한 네티즌 의견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로 3회째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체험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여름 휴가로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을 한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남도가 광역시·도 부문 종합 만족도 2위를 차지했다.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 기초지자체 평가에선 순천시, 완도군이 '종합만족도' 전국 1, 2위를 휩쓸었고, 놀거리·먹거리·윺거리 등 5개 요소를 평가하는 '여행지원 풍족도' 부문에도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김정환 기자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자 선정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회장 정승현)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이윤자)는 3일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자를 확정·발표했다.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호남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협회 기자단과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하는, 호남지역 인물대상 최고 권위의 상이다.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선정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의 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12개 분야 46명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수상자 심사를 위해 김상덕(세계조각·장식박물관 관장, 경영학 박사), 박영국(변호사), 안정기((재)우리정책연구원 부원장, 행정학 박사), 윤종록(조선대학교 교수, 경영학 박사), 이성희((사)한국맛음식연구원, 식품안전학 박사), 이윤자(전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 천형욱(변호사), 탁인석((사)기업진흥원 원장)(가나다 순) 등 8인의 각 분야별 외부위원과 정승현 협회장, 김호성 협회고문(한국타임즈 대표), 지영봉 협회고문(MBN 호남지사장) 등 내부위원 3인, 총 11인으로 구성해 지난 달 20일과 29일 회의를 열어 수상자를 확정했다. (2면에 계속)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
함평생비빔밥

함평생고기비빔밥은 푸짐하게 들어가는 한우생고기와 데친 야채, 소 뼈를 우려낸 맑은 선젓국과 삶은 돼지비계가 곁들여 나온다. 생고기 비빔밥과 함께 나오는 맑은 선젓국과 삶은 돼지비계는 생고기비빔밥의 고소한 맛을 더하는 함평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문화 이기도 하다.

함평생비빔밥 어울림마당 축제 개최
일자 : 2018. 12. 7. (금), 장소 : 함평 5일시장 내 식재료 센터